

뉴스
대학교육

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, ‘한국어 교육자 체험 수기 공모전’ 개최

한글날 기념...한국언어문화학과·국제언어교육원 공동 주관

이현진 기자 | lhj@unn.net



승인 2017.09.04 19:16:18



▲ '한국어 교육자 체험 수기 공모전' 포스터

[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]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(총장 박창식, 이하 서울문화예술대)는 한국언어문화학과가 훈민정음 반포 571돌을 기념해 '제 8회 국내 및 해외 한국어 교육자 체험 수기 공모전'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.

이번 공모전은 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언어문화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이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, 국립국어원, 국립국제교육원, 국립한글박물관, 재외동포재단, 세종학당재단, 종이문화재단, 태학사가 후원한다.

외국인 및 재외동포,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,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분량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.

주제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, 다문화 가정 구성원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체험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생생한 지도 체험이다.

접수는 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언어문화학과(class.scau.ac.kr/language) 또는 국제언어교육원(language.scau.ac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원고와 함께 응모 전용 전자 우편(essay@scau.ac.kr)으로 접수하면 된다.

당선작은 11월 중순 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언어문화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. 최우수상(1명)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, 재외동포재단이사장상, 세종학당재단이사장상, 종이문화재단이사장상(각 1명)과 우수상(2명)에게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. 장려상(5명)에게는 상장 및 상금 20만원, 입선(10명)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.

육효창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(국제언어교육원 원장)는 “외국인 및 재외동포,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전 세계 한글어 교육자와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